

# ‘부상·월드컵 변수에도’ 손흥민, 대활약...시즌 마무리

2022~2023시즌 EPL 통산 14골 6도움

안와골절 부상·시즌 중 월드컵 변수 이겨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부상과 월드컵이라는 변수를 극복하고 2022~2023시즌을 잘 마무리했다. 23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지난 시즌과 비교해 아쉬움이 남지만 안와골절 부상과 수술, 시즌 도중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등을 감안하면 잘 이겨낸 시즌으로 볼 수 있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리즈의 엘런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2~2023시즌 EPL 최종 38라운드에서 도움 1개를 올리며 토트넘의 4-1 대승에 일조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0골 6도움 성적표를 받았다. 각종 컵대회를 모두 포함하면 14골(리그 10골·FA컵 2골·챔피언스리그 2골) 6도움이다.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각종 컵대회를 포함해 7시즌 연속으로 공

격포인트 20개 이상을 유지했다. 무엇보다 대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지난 4월 브라이튼과 30라운드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EPL 통산 100번째 골을 터뜨렸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EPL 260번째 경기에서 나온 대기록이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기록이다.

EPL 역사를 통틀어 34번째다. 앨런 시어러, 웨인 루니, 해리 케인(이상 잉글랜드), 티에리 앙리(프랑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등 33명이 손흥민에 앞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했다.

EPL 역사상 19번째로 통산 100골-50도움을 기록한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EPL 통산 103호골을 기록 중이다. 호날두의 통산 기록과 타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득점왕을 차지한 지난 시

즌과 비교하면 험난했다. 우선 초반 페이스가 매우 좋지 못했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해도 골로 연결되는 장면이 없었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

손흥민은 개막 7경기에서 침묵했다. 레스터 시티와 8라운드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긴 침묵에서 탈출했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했다.

더욱이 큰 부상 암초가 덮였다. 지난해 11월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프랑스)와 경기에서 안와골절을 당했다. 수술대에 올랐다.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손흥민은 마스크 투혼을 보여주며 책임감 있는 주장의 면모를 뽐냈다.

정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기어이 한국을 16강으로 이끌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특히 포르투갈과 최종전에서 황희찬(울버햄튼)의 결승골을 돕는 침착한 패스를 선보였다.

그러나 시즌 도중 열린 월드컵의 후유증이 있었다. 부상도 완쾌되지 않아 컨디션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의 부진은 토트넘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토트넘은 성적 부진으로 3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물러나게 했고, 이어 대행을 맡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코치마저 경질됐다. 토트넘은 결국 이번 시즌 리그에서 8위에 머물러 다음 시즌 유럽 클럽대항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비시즌 대대적인 쇄신이 예상된다.

## 무안군청 소속 유하늘, 대통령기 제45회 전국검도선수권 개인전 우승

결승까지 7경기 연속 승리, 올 시즌 개인전 첫 우승 쾌거



무안군은 대한검도회 주최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기 제45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무안군청 소속 유하늘(34세, 검도 6단) 선수가 남

자 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26개 실업팀의 88명의 선수가 남자 일반부에 출전했으며, 7경기를 연속으로 승리해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개인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하늘 선수는 준결승에서 용인시청 이진혁 선수와 연장전 접전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어 결승에 진출했고, 울산광역시청 김관수 선수에게 머리치기로 한판승을 따내며 권위 있는 대통령기 전국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 무안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검도단 발전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청 직장 검도팀은 지난 2002년 창단했으며, 현재 이광철 감독을 중심으로 8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청 우수팀(왼쪽 김창현, 조의민, 박정열, 장민규, 윤웅진, 김영준, 김민수, 장보근 코치)

## 전남도청 우수팀, 제6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 활약

총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단체전에서도 우승차지

전남도청 우수팀이 제6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전남도청 우수팀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북 김천베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6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총 금 4개, 동 3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투로 종목에 출전한 장민규(전남도청)는 태극권전능에 출전해 하나의 실수도 없이 연기를 펼쳐 태극검(9.66점)에서 금메달, 태극권(9.68점)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정열(전남도청)도 장권전능에 출전해 곤술에서 9.54점으로 금메달, 도술에서 9.44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산타에서도 메달행진은 이어졌다. 전남도청 우수팀 주장인 윤웅진(전남도청)은 8강전에서 홍민준(서울개발공사)의 기권으로 준결승에 진출했고, 준결승에서 박재현(영주시청)을 만나 2: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이재준(포항시체육회)을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조의민(전남도청)도 산타·70kg급에 출전해 맹장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에서 함관식(충북개발공사)에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전남도청 우수팀은 등타 단체전에 출전, 충북개발공사를 꺾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 전남도청 입단한 박정열과 조의민은 입단 후 첫 메달을 획득하는 기쁨을 누렸다. 장보근 전남도청 우수 코치는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 올해 입단해 첫 메달을 획득한 제자들에게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남의 대회와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제 104회 전국체전을 열심히 준비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서승재-강민혁, 말레이마스터스 정상 등극...올해 첫 우승



1월 인도오픈(3위)  
3월 독일오픈(준우승)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강민혁 조가 올해 첫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복식 세계 16위 서승재-강민혁 조는 28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3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남자 복식 결승에서 세계 26위 만웨이홍-카이운트 조(말레이시아)를 2-1(21-15 22-24 21-19)로 이겨 우승했다.

1월 인도오픈(3위), 3월 독일오픈(준우승)에서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고배를 들었던 서승재-강민혁 조는 이번 대회에서 올해 첫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 유승민 회장, 기세 좋은 韓탁구 아시안게임 장밋빛 전망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선전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기운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탁구는 지난 20일(한국시간)부터 2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남자 복식 장우진-임종훈 조가 은메달,

이상수-조대성 조가 동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복식에서 신유빈-전지희 조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 회장은 한국 탁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늘 힘들었다. 또 일본, 대만, 홍콩 등 세계 톱 5가 다 아시아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다. 그건 어떻게 준비해서 호흡을 맞추느냐에 따

라 달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에 아시안선수권대회가 우리나라(평창)에서 열린다. 한국 탁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강했고, 그 대회에서 국제대회로 연결 돼서 좋은 성적이 났다. 지금 출발이 좋았으니 아시안선수권에서 더 잘해주면 항저우, 세계대회 단체전(부산), 올림픽까지 기운이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양용은, 시니어 PGA 챔피언십서 4위...개인 최고 성적

최경주 공동 26위, 위창수 공동 29위

양용은(51)이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십 투어의 메이저대회인 시니어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서 4위에 올랐다.

양용은은 2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랜치 이스트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를 쳐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친 양용은은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양용은은 챔피언십 투어에 데뷔한 후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번 시즌에만 두 차례 톱10에 오르는 등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스티브 스트리커(미국)는 연장 승부 끝에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을 제압했다.

스트리커는 챔피언십 투어에서 14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양용은이 미 텍사스주 프리스코의 필즈랜치 이스트 GC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니어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1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양용은은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경주(53)는 최종합계 2언더파 286타를 쳐 공동 26위에 이름을 올렸고, 위창수(51)는 이번과 288타를 기록해 공동 29위에 자리했다.